

언론을 통해서 본 87년 노동자대투쟁

87년 그 언저리에 '노동자 의식화 사업'의 단골메뉴 중 하나는 신문기사읽기였다. 사회면의 기사 하나 오려서 돌려읽고 소감을 말하고, 그 중 '잘난' 누구는 그 기사의 행간을 설명하거나 기사가 담지 못한 진실을 그려보기도 하는…… 그 노동자들이 세상의 한복판으로 걸어나왔던 것이다.

노항래

장부투자기관노동조합연맹 연구실장

87년 노동자투쟁이 10년 전 일이 되었다. 오늘 우리 노동운동의 뿌리를 찾자면 10년전 노동자대투쟁을 짚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활동중인 노동조합의 적지않은 수가 그 투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오늘 노동운동의 주역들이 87년 노동자투쟁으로부터 시작된 2-3년간의 민주노동운동으로부터 대중운동의 주역으로 나섰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지 않다.

무엇보다 오늘 노동운동의 허리를 이루고 있는 세대, 3-40대 노동자들에게 가장 강렬했던 충격 역시 87년 투쟁이었다. "달

장집에서 짐승같이 살다가 그 날 나는 처음으로 내가 사람임을 알았다"는 고백도 있다. "넥타이 맨 회사인간'이 내 숙명인 줄 알았다가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내 속에 있던 말하지 않으면 안될 너무 많은 갈망을 주체할 수 없었다", 사무직들 역시 다르지 않다.

"임금 50% 인상하라!"

"인간답게 살고싶다"

"똥치면 주인되고, 흠어지면 노예된다"

이런 구호를 찾아볼 수 있는 빛바랜 사진 속의 장면들, 그 장면에 담긴 무게는 실로 묵중하다. 그 무게를 87년 노동자투쟁

을 당시 언론에 비친 기사들을 통해서 회고해본다.

“우리는 타이밍약 사다먹고요”

87년의 주제는 역시 ‘6월항쟁’이었다. 6.10 항쟁 다음날, 한 언론은 “소수의 사람들이 감히 반란을 일으키고, 이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은근히 바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를 승인하려는 상태, 이런 때가 나라로서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타키투스는 ‘역사’에서 말했다.”(조선일보, 6.11.<만물상>)며 전날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걱정은 그대로 현실이 되어 반란의 파고는 6월을 뒤덮었다.

뜨겁던 6월의 끝에 ‘6.29 선언’이 있었다. 이제 정국은 직선제 선거로 달려갈 관이었다. 7월 3일 연세대에서는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서총련)’이 주최한 <시국대토론회>가 열렸다. 대다수의 연사들이 6.29 선언의 기만성을 주장하는 속에서도 그것이 6월투쟁의 성과임을 외면하기 어려운,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불투명한 토론회였다. 그 자리에는 ‘타이밍약 사다먹으며 24시간 휴식없이 비상을 밟아대는 노동현장의 고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한 여성노동자의 절절한 호소도 있었다(국민운동본부 <6월항쟁 자료집>). 당시 ‘불법노조’였던 청계퍼복노조 황만호 위원장은 “최근의 개헌논의는 권력구조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노동문제에 대한 것은 없다. 노동권 제한을 없애고 노동약법이 폐지되어야 한다”(한국일보 7.

4)고 주장했지만, 급속히 권력구조 논의로 이전해가는 정국에서 작은 목소리에 불과할 뿐이었다.

7월은 시국사법 석방(7.8), 이한열 장례식(7.9) 등으로 시작되었다. “6.29 선언으로 나타난 화합의 정신으로 각자 자기 맡은 바를 다하는 것이 민주화 일정의 출발”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담화(7.1)도 있었다.

그즈음 울산 현대목재, 현대엔진 등에서 노조 결성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었다. 7월 초, 현대엔진, 현대종합목재 등에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노동부 울산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그룹측의 신고서 탈취 등의 사태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았다(권용복 <현대그룹 노동운동사>). 외면한 것인자, 그 파고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부 경제지들이 분석하기를, 각 사는 이미 상반기에 87년도 임금인상 규모를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액수 역시 그리 작은 것은 아니었다”. 수년 내 가장 높은 9.8% 선이었고, 각 기업은 3저 호황으로 불어닥친 호경기(이 때 시작된 호경기는 80년대 말까지 계속된다)에서 제품이 없어서 붓과는 환호성을 올리고 있었다.

노동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당시 논의되던(그리고 그 해 10월 말 국회에서 입법화된) 노동법 개정은 ‘노동조합 설립요건 재한규정으로 조합원 30인 이상이 되어야 인준한다는 조항을 삭제

하자'는 안이다, '공익사업체 30일, 일반사업체 20일 등으로 규정된 냉각기간을 공익사업체 20일, 일반사업체 15일 등으로 완화하자'는 등 일부나마 완화된 노동통제를 약속하고 있었다.

7월 중순, 대규모 폭풍이 몰아쳤다. 16일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셀마가 부산·경남 지방을 강타해서 314명의 사망·실종자를 냈다. 일주일 뒤 기상기록에 의하면 당시까지 사상 최대의 폭우가 금강 하류 지역 서천-부여-강경 지역에 쏟아져 금강이 역류하면서 금강하류지역이 물바다를 이뤘다. 사망·실종자 140이명. 다시 이삼일 뒤 이번에는 서울-경기지역에 태풍 엘릭스가 덮쳐 구로공단과 광명시가 물바다가 되었고 사망 실종자 97명을 냈다. 두 주일도 채 안되는 사이에 전국이 불벼락을 맞았다. 사망자가 500명을 넘는 대재난이었다.

6월 항쟁, 7월 태풍, 8월 파업……

그 대재난속에 또다른 폭풍이, 역시 사상 최대'로 기록될 사회적 파고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7월 19일, <한국경제신문>은 현대미포조선에서 노동조합신고서 탈취사건이 있었음을 사회면 귀퉁이 한국노동총소식 1단 기사안에 전한다. 금강하류에 폭우가 쏟아지던 7월 23일, 각 신문은 역

시 1단 기사로 "국내 최대의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에 노동조합이 결성되었다"(이노조는 8월 내내 "회사측이 노조결성을 막기 위해 조직한 어용노조"라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원성의 표적이 된다)는 소식을 알린다. 사실 7월말까지 노동조합 관련기사는 이 정도였다. 경제지들이 노동조합과

두 주일도 채 안되는 사이에 전국이 불벼락을 맞았다. 사망자가 500명을 넘는 대재난속에 또다른 폭풍이, 역시 사상 최대'로 기록될 사회적 파고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관련한 노동부 집계를 보도하는 정도였다. 7월 25일 한국경제신문은 "6.29 후 노조 65개 설립" 제하에 "지난 6월말까지 상반기 중 결성된 노조수를 육박하는 규모로 7월 들어 노조결성률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전한다.

언론이 보기에 어렇듯 비교적 잠잠하던 노동현장이 갑자기 폭발한다. 7월 29일부터 각 언론은 노동자 파업소식을 전한다. 들끓어였다. "근로자 농성 잇따라 - 임금인상, 어용노조 퇴진 등 다양한 주장"(조선 7. 29), "현대중공업 농성 일단 해산 - 회사측 근로자 요구 일부 수용키로"(한국 7. 30), "울산공단 노사분규 계속 진통"(조선 7. 31), "농성근로자 해산시키다 중동 - 부산 국제선사 사무직 500여명 기숙사 각목진입"(한국 7. 31), "노사분규 현달세 71건 - 6.29 이후 대화보다 집단행동 경향 뚜렷"(한경 7. 31), "잇단 노동쟁의... 경제활동 차질 - 한꺼번에 무리한 요구 협상 어려워"(한경 8. 1) 등의 기사가 2-3일 사이에 각 신문에 쏟아진다. 7월

31일 조선일보는 “농성장 탈출”이라는 제하에 사진까지 곁들여 “국제상사 근로자들이 회사측이 휴가비를 지급하면서 농성장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지며 대부분 농성장을 이탈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날 농성장 이탈은 구사대의 자목 공격을 피한 여성노동자들의 피신이었다. (국제상사의 파업은 8월 내내 계속된다).

7월 말 - 8월 초, 언제 시작되었는지 보도하지 않았던 분규의 해산 소식이 사회면을 시커멓게 장식하고, ‘웬 소동이다’는 식의 노동쟁의가 신문기사로 대문짝만하게 속속 보도된다. 그로부터 8월 한 달 내내 파업 소식이 가장 큰 뉴스였다.

파업소식은 갈팡질팡이다. ‘진정국면 돌입’ (8월 중 적어도 전국 파업 진정국면이 서너차례 계속된다)을 전하는 소식 다음날 대문짝만한 파업소식이 뒤를 잇는다. “중공업 진정국면, 전지업체 확산”, “현대중공업 농성 재돌입 - 작업거부로 공장 울스름”, “울산지역 소강상태, 경인지역 집회”, “머스파업 위기 넘겨” 기사 옆에 “탄광시대 분규 폭력사태로 비화” 소식이 나란히 서고, “유봉업체마저 파업 돌입”, “하늘까지 번진 노사분규, 김포공항 일부 마비 - 한국공항 1천여명 철야농성, 정부중재 재협상 결렬” 등을 거쳐 마침내 “전국, 전산업에 파업 사태 확산” 기사에 이른다.

한 달 사이 파업 3,000여 건…… 파업 도미노

그 중 몇 기사를 옮기면 이렇다. “어용노조 퇴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8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던 경남 울산 현대중공업 노사분규가 31일 회사측이 근로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4일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조선 8. 1). “전국 주요사업장에서 일어난 노사분규가 노사협상에 의해 속속 타결, 정상을 회복하고 있다.”(조선 8. 3). “7일 하루에도 40여건의 신규 노사분규가 발생하는 등 노사분규의 파문은 전국 주요공단으로 확산돼 공단내 기업체들이 공장가동을 중단하거나 운휴에 들어가는 사태가 속출, 국가경제에 커다란 주름살을 안겨주고 있다”(한경 7. 8). “계속 확산되고 있는 노동쟁의로 기업간의 연쇄 부작용이 일어나 생산중단의 도미노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에서는 국제상사의 휴업이 장기화하고 있으며, 대우자동차, 기아산업 등 자동차생산공장의 휴업에 이어 광주 아시아자동차 근로자들도 11일 노동쟁의를 일으켜 주요 자동차산업의 생산활동이 거의 중단됐다. 광산근로자와 운수업체 종업원들의 노동쟁의가 더욱 확산된 가운데 11일에는 매일유업, 빙그레 등 유제품 생산업체의 노사분규가 잇따르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여신 선원들이 공동어시장을 점거한채 농성을 벌여 수산물 반출이 중단됐다. 한편 중공업단지인 창원공단에서는 금성사, 삼성중공업, 기아기공 등 27개사 근로자들의 쟁의가 계속돼 공단기능이 거의 마비상태이며, 대우옥포조선소도 노사간 타협의 실마리가 잡히지 않아 분규가 장기화하고 있다. 경인지역에서는…”(한국 8. 12). “용돌이 25일 현재 전국에서 발생한 노사분규는 2,064

건으로 이 가운데 1,451건이 타결되고 613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발생분규 중 1,940건이 6.29 선언 이후 58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노사분규는 8월 중순부터 하루 100건 이상씩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13일 110건, 17일 186건, 19일 148건, 20일 177건, 22일 178건, 24일 174건, 25일 116건 등 지난 13일 동안 전체 분규의 73%에 해당하는 1,534건이 발생했다.”(한경 8. 26).

파업이 확산되면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재는 분석기사, 취재기사 방담기사가 줄을 잇는다. 8월 동안 특집 시리즈 기사를 내지 않은 신문이 하나도 없다.

“분규 폭발의 가장 큰 원인은 과중한 작업량에 비해 임금수준이 낮고 열악한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이 방치돼온 것이었습니다. 기능직 근로자들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일요일에도 잔업 등 무리한 작업을 강행 가까스로 20만원을 넘는 수입으로 합거운 생활을 하는게 보통이었습니다. 일부 과격한 양상은 근로자들의 의식 전반에 깔려있는 자포자기식 절망감 때문이었습니다. 거제도 옥포 대우조선소의 한 근로자는 ‘거세도를 찾는 부유한 관광객들이나 회사로부터 직사대접을 받는 외국인 바이어들을 볼때마다 내 인생을 다

시 생각케된다 고 말하더군요... 삼척탄좌의 한 광원은 ‘자식형인 사무직원이 반말이나 폭언을 자주해 인간적 모델감을 느낄때가 많았다 고 토로하더군요... 노사분규의 한 원인은 노조활동이 미흡했던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농성장에서 ‘어용노조 되진 과 민주노조 설립’을 제 1항으로 내세웠는데 일부 근로자들은 ‘노조는 월급의 1%를 떼가고 1년에 수천 한 장 주는 곳’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한국 8. 16). “근로자들의 일반적 요구조건이 다양했다는 추과 일부 너무 무리가 아니

는 양론이 상당히 무성했습니다. 우선 요구조건이 종류가 많은 것이 대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거의 전지역, 전업종에서 노조결성문제였으나 대개 20여가지를 넘고, 대광산업, 동양나일론 등은 30개가 넘었지요. 그 중에는 ‘작업장 온도가 50도를 넘음에도 있어 설치만 돼 있고 가동하지 않는 에어컨을 가동시켜달라’, ‘생산직과 사무직의 다른 작업복을 통일시켜달라’, ‘출퇴근시간을 정확히 지켜달라’, ‘짧은 머리를 강요하지마라’는 등의 요구도 있었습니다.”(조선 8. 18). 하나같이 지적하기를, 낮은 임금, 무권리, 열악한 근로조건 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노동현상의 문제였다. 그 문제가 이제 수면위로 올라선 것이다. 강원도 탄광지대

낮은임금, 무권리,
열악한 근로조건 등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노동현상의 문제였다.
그 문제가 이제 수면위로 올라선 것이다.
강원도 탄광지대에서는 “저를 계산
회장님 얼굴이나 한 번 봅시다”는 구호가
현수막으로 내걸렸다.

에서는 “서울 계신 회장님 얼굴이나 한번 봅시다”는 구호가 현수막으로 내걸렸다. 그렇듯 노동자들은 사회의 ‘막장’으로 몰려 있었고, 분노가 헤일처럼 터져 ‘도미노현상’(어느 신문도 빠뜨리지 않은 문구다)처럼 전국을 파업의 물결로 덮은 것이다.

두발자유화, 에어컨 설치, 임금 50% 인상 등 요구

기세앞에서 기업주들은 당황했다.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은 현대중공업 농성 노동자들에게 등떠밀려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노조는 특징인의 출세와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민주노조가 되어야 한다”(조선 7. 31)고 기음을 토했고, 8월 13일 불법파업이라며 처음으로 직장계쇄를 단행한 ‘삼양산업’은 며칠 뒤 가 언론으로부터 “성실한 대화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며 “그런 태도야말로 현 파업사태의 원인”이라는 비난을 뒤집어쓰고 철회하기에 이른다. 8월 20일 전경련은 중앙일간지 전체에 “여러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는 세하의 광고를 게재한다. “분연한 마음으로 밤을 새워 농성 시위를 벌이고 있는 근로자 여러분! 그토록 뜨겁게 그리고 질박하게 외치는 목마름의 호소속에 담긴 참뜻과 요구를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가슴으로 이해합니다……”

파업사태가 확산되면서 기업주, 언론들은 애꿎은 한국노총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다. “한국노총과 산하 16개 산업별노

련은 노사분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전혀 조직으로서 역할을 못할 뿐 아니라 노총의 경우 4.13 호헌조치에 대한 지지성명 시비까지 겹쳐 완전히 기능이 정지된 상태”(조선 8. 14)라며 한국노총을 추궁하기도 한다.

8월 22일, 거제 장승포에서 대우조선 소속 이석규씨가 경찰 최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부터 파업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다. 우선 두 달 여에 가까운 파업사태가 계속되는 동안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던 재야세력(6월항쟁을 이끌었던 ‘국민운동본부’ 등)이 노동자 투쟁에 적극적인 결집을 시도한다.

한편 이즈음부터 신문의 논조도 바뀌어 갔다. “이제 그만하자”는 것이다. “무덤고긴 8월의 한국, 노사분규 회오리 국민들은 불안, 짜증”(한국 8. 30). “시위야년 난동, 내구택시기사 노사분규는 차리리 난동이 라는 표현이 어울렸다. 이들은 행진 중 술에 취한 채 운행중인 개인택시가 눈에 띄면 우리창을 깨뜨렸고, 운전자를 폭행하는가 하면, 택시를 뒤집어 었기까지 했다.”(조선 8. 28)는 등의 기사가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이석규씨 장례문제로 옥포에 내려간 국민운동본부 간부진들이 “영혼을 무기화하고, 성스러운 정령을 정처목적에 이용하려는 사람들”(조선 8. 29)로 질중 비난되었고, “장기파업으로 민주화 일정이 파산한다면 누가 좋아하겠는가”를 묻는 사설도 각 신문에 일제히 게재되었다.

8월 28일, 민주국민장으로 치루어진 대우조선 이석규씨의 시신이 광주 망월동

장지로 향하다가 중도에서 경찰병력에 의해 시신을 탈취당해, 고향 선산으로 강제 이송되었다. 이 날 국무총리 김정필씨는 '좌경세력 적결 국무총리 담화'를 발표한다. "지난 7월 이후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노사분규는 '노동자해방', '노동민주화'를 외치는 좌경세력의 충격적인 주장과 구호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날이 갈수록 과격-폭력-혼란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사분규라 할 수 없다"

그로부터 7-8월 투쟁은 마지막 국면에 돌입한다. 9월 1일, 울산 현대 노동자들이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이성을 약속했던 회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에 대한 분노였다. 노동자들은 8월 중 이미 해보았던 길을 따라 공실운동장에 모여, 남목고개를 넘어 행진했다. 그리고 울산시청을 점거했다. 그 시청에서 걸잡을 수 없는 폭력시태가 발생한다. "무법... 울산시청 수리장... 흥분한 근로자들은 구내이발소 옆 주차장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0평 차고고를 모두 불태웠다. 이들의 난동으로 시청건물 1-2층 유리창은 거의 깨졌으며, 3-4층 유리창은 절반정도가 깨졌고, 시청 구내 마당은 깨어진 유리창 조각, 불맹이 등으로 폐허를 방불케 했다"(조선 9. 3).

이날부터 기사는 급전한다. "광산분규

조종 위장부부 적발, 철도점거-기물파괴-부녀동원 등 선동"(조선 9. 3), "현대중근로자들 시류 불태우고, 회사본관 난입 타치는대로 파괴", "부평 대우자동차 농성자 관리직 사원 린치, 농성 계속", "서울 운전사 시위 운행태서 보는대로 파손", "한국경제 뿌리채 흔들린다, 대기업들도 흑자도산 직면" 등의 기사가 쏟아진다.

그해 기율, 노동법 개정논의가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투쟁의 주역들은 거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두 달 동안 전국의 파업현장에서 노동법은 시문화된 조항이었으나, 투쟁이 끝난 뒤 고스란히 애초의 권위로 되돌아갔다.

급전상황을 알리는 압권은 9월 5일 열린 국무회의였다. 이례적으로 국무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기자, 차관관계자, 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조규하 전경련 전부가 출석.

'최근 노동쟁의의 실상과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보고를 한 것이다. "무조건 인민제판식으로 기존노조를 어용으로 매도 규탄하고 소위 민주노조를 결성한 뒤... 경영상에 대한 적개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온갖 유언비어를 날조 선동하고... 사장이 자살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임원과 부장급 숙소에 들어가 가족들을 목욕탕에 몰아넣고 쟁과리를 치며 농성하고... 임원을 린치하고, 공개장소에서 무릎꿇게 하며... 드림통에 사장들 집어넣고 끌리고 다니는 등"..... 보고는 공개적인 선동이였다. 결국 이 국무회의는 법무-내무 장관 등이 "국기를 흔들 정도로 파격 양상을 보이고 있는 최근의 분규는 더 이상 순수한 노사분규로 볼 수 없다"며 강경진압방

침을 밝히고 끝난다. 이로부터 10여일 사이 구속자가 속출하고, 파업은 점차 수그러든다.

그리고 두 달여간 공전을 계속했던 정치 일정이 9월 중순 김대중씨의 '불출마선언 반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로 휘둘러 갔다.

중공업 중심, 자연발생적 투쟁, 전망 불투명

87년 노동자투쟁은 노동운동의 주력을 남성-중공업 노동자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국적인 파업투쟁이었다. 80년대 억압적 노동통제하에서 권리를 빼앗겨왔던 노동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여전히 권력의 통제하에 있던 노동조합 상층지도부가 노동자대중을 외면해온 저간의 사정으로, '노동조합 민주화=노동조합 정상화' 요구가 어느곳에서든 분출했다.

그러나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로 심장되듯 투쟁의 자연발생적 성격은 지도부 부재, 목표 부재 등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투쟁발전에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그리고 끝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무엇보다 '6월항쟁의 승리=군부독재의 후퇴'를 비집고, 노동현장의 묵은 요구를 관철하고, 억압적 노동통제로 가위눌린 노동현장에서 민주적 노사관계를 관철하는 투쟁으로 승화하지 못했다. 그 해 가을, 노동법 개정논의가 있고 실제로 일부 조항의 개정이 있었으나, 투쟁의 주역들은 거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두 달 동안 전

국의 파업현장에서 '노동악법'은 사문화된 조항이었으나, 투쟁이 끝난 뒤 고스란히 애초의 권위로 되돌아갔다. 실제로 그해 가을에 개정된 노동법은 올해 초 노동법 개정까지 10여년동안 고스란히 유지되었고, 맹위를 떨쳤다.

뿐만 아니라 6월항쟁으로 표현된 '민중정부 수립'에 대한 시대적 과제도 노동자투쟁은 받아내지 못했다.

87년 그 언저리에 '노동자 의식화 사업'의 단골메뉴 중 하나는 신문기사읽기였다. 사회편의 기사 하나 오려서 돌려읽고 소감을 말하고, 그 중 '잘난' 누구는 그 기사의 행간을 설명하거나 기사가 담지 못한 진실을 그려보기도 하는…… 그만큼 세상과 담쌓고 살던 노동자들이 그 세상의 한복판에 걸어나왔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들에게 쏟아지고, 정신차리기 어려운 혼란과 이리등질한 소동이 있고난 뒤, 그들은 '소동' (?)끝의 황량함만 남은 다른 별판위에 섰다. 누구도 7-8월 투쟁의 사자들에게 승인도 격려도 보내주지 않았다. 파업 확산의 기세에 밀린 초기의 "이유있다"던 동정론은 점차 "남득할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비난으로 변해갔다. 노동자들은 어떤 답도, '새로운 길'에 대한 전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미 나와버린 세상,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아니 결코 되돌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10년을 지나온 것이다. '우리, 지금, 여기까지!'. ❖